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18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하천계획과	담당자	·과장 장순재, 사무관 정성욱 ·☎ (044) 201-3612, 362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4대강 친수지구 조정은 국민 이용도를 고려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한 것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·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.
 - 이후, '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 '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'를 실시하였으며,
 -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도가 저조한 친수지구 60곳을 '17.1월 해제하여 현재는 297곳의 친수지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친수지구 조정은 '14년 국회 상임위 지적*에 따라 '14년도 이용도 조사에 착수한 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'17.1월에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.
 - * (국회지적사항) 친수지구 이용률을 기반으로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필요

- 또한, '18년 친수지구 이용객 통계는 9,735만명으로 '17년도 1억 2,782만명 대비 23.8%가 감소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.
 - ① '14년부터 '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기존 친수지구 357곳(169.5km³)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, '17년 이후의 이용객은 친수지구 조정 후 297곳(66.7km³)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.

② '14년부터 '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특정 지점의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해 개략적으로 추정된 반면, '17년 이후의 이용객은 통신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산한 수치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이용도가 높은 주요 친수지구를 중점관리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, 10.18.) >

◆ 文정부 들어 높은 국민 이용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친수지구를 대거 해제
⇒ 친수지구 해제 후 친수지구 이용객 큰 폭으로 감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정성욱 사무관(☎ 044-201-36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